



父が遺した白い李朝の壺
 歴史が傷つけた痕があるけれど
 それも壺の美しさを損なうてはいない
 秋 壺はつつましい野花を
 黙って抱きとめている

谷川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조선백자 항아리
 역사가 흠집을 남겼는데도
 항아리는 여전히 아름답다
 가을. 항아리는 아담한 들꽃을
 말없이 그러안고 있다

다니카와



昨夜ふいに小糠雨が通り過ぎた
 松の木は青々と水を湛え
 椿も口もとを綻ばせている
 この姿 新しく壺に刻み
 海を隔てた友人たちに傳えたい

申庚林

간밤에 문득 이슬비 스쳐가더니
 소나무에도 새파랗게 물이 오르고
 동백도 병긋이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이 모습 새롭게 항아리에 새겨
 바다 건너 벗들에게 전하고 싶구나

신경립



ニュースでは
國と國が血を流しているが
天氣予報では
氣まぐれな雲が
はにかむ地球にヴェールをかぶせている

谷川

뉴스에서는
나라들이 피를 흘리고 있지만
일기예보에서는
변덕꾸러기 구름이
수줍어하는 지구에다 베일을 씌우네

다니카와



休戦ラインは春でも夜風が冷たいけれど
咲き始めた野の花たちは
互いに戯れつつ
兩側から われ先に
鐵條網を這い上がる

申庚林

휴전선의 밤바람은 봄이 와도 찬데
막 피기 시작한 들꽃들이
서로 장난질을 치며
양쪽에서 다투어
철조망을 기어 올라가고 있다

신경림



老人の深い嘆息
 幼子の弾けるような笑い
 放し飼いの牝鶏の甘ったれた鳴き聲
 世界は脈打っている
 物思いに沈む娘の未来のために

谷川

노인의 깊은 한숨
 어린아이의 깔깔거림
 놓아기르는 암탉의 어리광부리는 듯한 울음소리
 세계는 맥박치고 있다
 수심에 잠기는 아가씨의 미래를 위하여

다니카와



神様はすっかり老いてしまわれた
 陽射しに發熱した地球が
 苦しい息をしている
 意地惡な子らが軍靴でそれを踏み荒しても
 氣づかないのだから――

申庚林

하느님은 너무 나이가 드셨어
 햇살에 몸이 뜨거워진 지구가
 가쁜 숨결을 토해내도
 심술쟁이 아이들이 군화발로 그걸 짓밟아도
 못 보시는 걸 보면――

신경림



佛壇も神棚もない家
讚美歌をハミングする母
オルフェウスを夢見ている息子
理性の行く末を案じる祖父
テレビから流れてくるコーラン

谷川

불단도 신단도 없는 집
꽃노래로 찬송가 부르는 어머니
오르페우스를 꿈꾸는 아들
이성(理性)의 앞길을 염려하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코란

다니카와



祖父の一生の夢は國の開化
力を貸してくれると信じた隣人が
泥棒になるのを見て
酒と嘆息で生涯を終えたおろかももの
僕はその嘆息の中に詩を探し

申庚林

할아버지의 평생의 꿈은 나라의 개화
그때 이웃이 힘이 되어 주리라 믿었다가
그 이웃이 도둑이 되는 걸 보고
평생을 술과 한숨으로 보낸 못난 사람
나는 그 한숨 속에서 시를 찾고

신경림



酔うために飲むのではないから
マッコリはゆつくり味わう
アタマの中で右往左往してる意味のもつれを
味わいがカラダごと解きほぐしてくれる
おや やはり少マ酔ったのかな

谷川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니니
막걸리를 천천히 맛본다
머릿속에서 우왕좌왕 형클어진 의미의 웅어리를
그 맛이 온몸과 함께 송두리째 풀어준다
어, 나 역시 좀 취한 것 같구나

다니카와



南の海から悲痛な知らせ
何百人もの子供たちが水底_{みなそこ}で
船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という
國じゅう涙と怒りで大騒ぎなのに 僕はただ
散り敷いた花びらを見つめることしか

申庚林

남쪽 바다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
몇 백 명 아이들이 깊은 물 속
배에 갇혀 나오지 못한다는
온 나라가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나는
고작 떨어져 깔린 꽃잎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신경림



自らの心と書く漢字の息
 日本語では生きると同じ音の息
 聲にならない言葉にならない息が出来ない苦しみに
 想像力で寄り添うことすら出来ない苦しみ
 詩の余地がない

谷川

숨 쉴 식(息)자는 스스로 자(自)자와 마음 심(心)자
 일본어 '이키(息, 숨)'는 '이키루(生きる, 살다)'와 같은 음
 소리 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숨이 막히는 괴로움을
 상상력으로조차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괴로움
 시 쓸 여지도 없다

다니카와



夜通し水中で跪いて
 目を覺ますと布團が茨のごとく僕を刺す
 我關せずとばかり朝陽のまぶしい前庭では
 モクレン散りシヤクヤクが咲き
 そうして春は逝きつつあるのだが

申庚林

밤새껏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눈을 뜨니 숨이불이 가시덤불처럼 따갑다
 아랑곳없이 아침햇살이 눈부신 앞뜰에는
 목련이 지고 작약이 피고
 이렇게 봄은 가고 있는데

신경립



新聞から目を逸らしてテレビの音を消して
庭のカエデの若葉を見えます
人の手が觸れることの出来ないものを畏れることと
人の手が觸れたものを怖れることと
畏怖を忘れるとき恐怖が生まれる

谷川

신문에서 눈을 떼고 텔레비전 소리도 끄고
뜰에 있는 단풍나무의 어린잎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을 외경(畏敬)하는 것과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을 무서워하는 것
외경심을 잃어버릴 때 공포가 생긴다

다니카와



人の手の及ばざるもの いよいよ増え
人の手の及ぶもの いよいよ怖ろし
世に與え得る何ものもなく
ただずつと突つ立っている
ヤマナラシの老木が こんな日は妙に哀しい

申庚林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은 갈수록 많아지고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은 갈수록 두려워진다
세상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오래 서 있기만 하는
늙은 미루나무가 오늘따라 서럽다

신경림